□초 록 8□

성문암으로 레이저 성대절제술을 시행한 환자에 대한 음성학적 분석

고신대학교 의과대학 이비인후과학교실

이한국* · 이강대 · 이환호

목 적:

초기 성문암의 치료원칙은 종양의 완전적출과 음성의 보존이라 할 수 있다. 치료로서는 레이저 성대절제술을 포함한 보존적후두수술과 방사선치료로 나눌 수 있다. 1972년 Strong 등이 초기 후두암 및 후두의 전암 병변의 수술적 치료로 레이저를 이용한 후두 미세 수술을 시행한 이래 레이저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레이저 성대절제술을 시행 받은 환자에서 음성분석을 통해 초기 후두암치료에 있어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방 법:

고신대학교 복음병원 이비인후과에서 성문암 1기로 레이저 성대절제술을 시행 받고 음성분석이 가능하였던 남자 12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평균추적기간은 27개월이었으며, 평균연령은 64세였다. 대조군은 6명으로 모두 남자였으며 연령은 환자군과 비슷하게 통제하였다. 후두 스트로보스코피를 이용하여 성대 진동양상을 분석하였으며, 청각심리검사, 공기역학적 검사, 음향분석학적 검사를 시행하였다.

결 과:

최장발성지속시간은 15초였으며, 기본주파수 165.3Hz, Jitter 1.08%, Shimmer 8.85%였다. 음향분석학적 검사는 대조군과 비교하여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일음절과 이음절을 각각 10단어씩 녹음을 한 후에 정상인에게 청취하게 하였을 때 일음절과 이음절에 대한 단어 인식률은 대조군과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환자들은 모두 평균추적기간 27개월째 무병생존 중이다.

결 론:

레이저 성대절제술은 초기 성문암 치료에 있어 종양학적으로 안전한 술식이며, 종양의 침범범위와 절제 술식에 따라 다양한 해부학적 변이를 나타내었고, 음성학적 분석에서도 다양한 결과를 보였다. 환자들은 삶의 질 측면에서는 비교적 좋은 만족도를 보였다.